

동요흡이 동반된 흉부 손상 환자의 예후와 연관된 인자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장재한·김애중·신동근·김진·김민호·구자홍·조종구·김공수

현대의 도시화, 산업화, 고속화 그리고 농촌의 기계화 영농의 도입으로 흉부손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흉부외상 환자 13명중 1명은 다발성 늑골 골절, 늑연골 골절, 흉골 골절 등에 의해 흉벽의 기이 운동을 나타내는 동요흡을 동반하게 된다.

동요흡은 수술적 고정술, 인공 호흡기를 이용한 내부 고정술 등 여러 치료 방법과 각종 감시 장치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0년 부터 1994년까지 치험한 동요흡이 동반된 흉부손상 환자 70명의 예후와 연관된 인자들을 분석하여 동요흡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남자 환자가 56명, 여자 환자가 14명이었으며 이들의 연령 분포는 4세에서 82세까지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48.9세 였다.
2. 흉부손상의 원인은 교통 사고가 39례 (5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3. 동반된 기타 장기의 손상으로는 근골격계 손상이 43례, 뇌신경계 손상이 20례였으며, 복부장기 손상은 5례에서 있었다.
4. 환자들의 치료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내부고정을 36례에서 시행하였으며, K-wire나 Judet's strut를 이용한 외부고정술을 19례에서 시행하였다.
5. 70명의 환자중 16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22.9%였으며, 사망원인은 패혈증이 8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호흡부전, 신부전,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치료한 36명중 14명이 사망하였고, 외부고정술을 시행한 19명중 2명이 사망하였다.
6.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 80mmHg이하의 쇼크 상태인 경우, 50세 이상의 환자인 경우, 두부 손상이 동반된 경우 14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거치한 경우였으며 사망환자들의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은 생존 환자에 비하여 길었다.